

“사후 대응보다 선제적 사고 예방 최우선”

●‘취임 1주년’ 김인창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

신속 해양 기상정보 제공·선박 복원성 확보 등 정책 추진 위험 해역 등 미리 안내...6대 해양사고 전년동기비 감소

“위급 상황 발생 시 해경의 구조 능력보다 중요한 것이 해양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취임 1주년을 맞은 김인창(사진) 서해지방해양경찰청장은 지난해 취임사에서 제시한 ‘사고 이후 대응보다 선제적 사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업무 방향에 관련해 세가지 사항을 중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가지 중요 정책은 ‘신속한 해양 기상정보 제공’, ‘선박 복원성 확보’, ‘자동조타 운항의 위험성’이다.

김 청장은 9일 “해양경찰은 기상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수시로 급변하는 해양 기상을 정확히 파악해 선박과 어업인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부분의 해양사고는 풍랑예비특보와 풍랑주의보가 발효되는 중간 시점에 발생하고 있어 대피 시간이 부족하다고 판단, 광주지방기상청과 한 박자 빠른 예비특보를 발표할 수 있도록 수차례 협의했다.

이와 관련 서해해경청은 위험 해역과 시간대를 미리 파악하고 사전 대피 유도 문자를 전송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김 청장은 “선박 불법 증·개축, 어구 과다적재 등으로 선박의 복원성(수면에 떠 있는 배가 기울어졌을 때 원위로 되돌아오려는 성질)이 상실돼 전복 사고가 일어나고 있다”며 “특히 요즘 건조되고 있는 섬유강화플라스틱(FRP) 재질의 선박은 철선이나 목선에 비해 가볍고 부력



은 좋으나, 어구를 조금만 적재해도 무게 중심이 올라가 전복되기 쉽다”고 전했다.

그는 전복 사고 방지를 위해 불법 증·개축 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내부 직원과 외부 전문가(KOMSA 등)로 구성된 ‘어선 전복사고 예방 실무 협의체’를 구성해 어선 건조 단계에서부터 복원성 기준을 강화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김 청장은 “주의를 소홀하게 하는 자동조타 운항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화물선이나 낚시 어선들이 취약 시간대에 자동조타 모드로 운항하다 충돌할 경우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선제적 예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동조타 운항은 돌발상황에서의 기민한 대처를 어렵게 하고 좁은 운항을 유발해 위험하기

때문에 서해해경청은 선사들과의 협의를 통해 금만 적재해도 무게 중심이 올라가 전복되기 쉽다”고 전했다.

서해해경청은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 승선 정원 초과·선박 고박 지침 준수 여부 등 ‘해양 안전 저해 사법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현재까지 87건을 단속하고 안전 규정 미준수 사항을 점검했다.

또한 선제적 사고 예방 정책을 시행한 결과 취임 후 1년간 6대 해양사고(총돌·좌초·전복·침몰·침수·화재)가 237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72건(23%)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났다.

김 청장은 “생활밀착형 서비스 실현을 위해 어선 안전진단, 경비함정 안전 관리 지원 등 어업인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며 “신속한 해양기상 정보 제공과 ‘선박 복원성 확보’, ‘자동조타 운항의 위험성’은 안전한 바다와 선제적 사고 예방을 위해 꼭 유념해야 될 사항”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목포=정해선기자



한국해양연구원-아시아인문재단 협약

한국해양연구원(원장 홍영기)과 아시아인문재단(이사장 김성중)이 지역학·한국학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인력육성 및 상호교류에 나선다.

양 기관은 지난 3일 진흥원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 간 인적·물적 자원 연계와 유기적인 협력 도모를 위해 6개 항목에 합의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지역학·한국학 학술연구 진흥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정보 교류 ▲지역학·한국학 연구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상호 교류 ▲지역학·한국학 기반 교육 및 정책 제안 ▲문화콘텐츠 개발 및 상호 협력 운영 등이다.

이를 위해 양 기관은 다음 달 4일부터 ‘호남의 인물’을 주제로 한 호남학TV 강좌를 온·오프라인으로 운영하고, 중국·베트남 등 국외기관과 학술협약 등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최명진기자



광주시교육청, 차선우 홍보대사 위촉·홍보단 발대식

광주시교육청은 9일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에서 광주교육 첫 홍보대사 배우 차선우 위촉식과 우리학교 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차선우는 중학교 시절 담임선생님과 만남을 주제로 스승의날 맞이 홍보영상 촬영 등 본격적인 홍보대사 활동을 시작했다.

시교육청은 위촉식에 이어 200여명의 학생이 참여하는 ‘우리학교 홍보단’ 발대식도 개최했다.

배우 차선우는 “학창시절을 보낸 광주교육의 첫 홍보대사로 위촉돼 영광이고, 감사하다”며 “광주교육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홍보대사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정선 시교육감은 “차선우 홍보대사의 열정과 선한 영향력이 학생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더불어 ‘우리학교 홍보단’ 학생들의 광주교육 홍보 활동도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대기자



전남도,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남도문화탐방 행사

전남도는 9일 한국전력공사 등 16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 80명을 초청해 남도문화탐방 행사를 진행했다.

남도문화탐방은 ‘전남 제대로 알기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2007년부터 연 1회 운영하고 있다.

이번 탐방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연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장소와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이뤄졌다.

국내 최대 규모 공동 전문 박물관인 해남 우항리 공룡박물관과 자연사 유적지 일대를 탐방

하고, 천년고찰 해남 대흥사에서 국보 제308호 북미륵암 마애여래좌상 등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둘러봤다. 또 청령 문화 캠페인도 진행됐다.

행사는 영암 예담은규방문화원에서 천연염색 체험과 함께 도정 성과와 미래 비전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마무리됐다.

김지호 전남도 혁신도시지원단장은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이 전남도민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살기 좋은 혁신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보성경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개최

보성경찰서는 9일 “전남 경찰서 사회의실에서 도로교통공단, 지자체 등 교통전문가 및 치안파트너로 구성된 9명의 심의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1차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의위원회에서는 과속카메라 설치, 횡단보도 신설, 중앙선 절선, 탄력적 주·정차 허용 등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민원으로 접수된 45건의 사안을 심의해 가결 40건, 부결 5건으로 의결했다.

양백승 보성경찰서장은 “이번 심의에서 가결된 안전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와 협력하겠다”며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교통안전 요구·시설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임병연기자

(주)해양에너지, 빛고을장학금 5천만원 기탁

(주)해양에너지가 9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재)빛고을장학재단에 빛고을장학금 5천만원을 지정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빛고을장학재단 이사장인 강기정 광주시장과 (주)해양에너지 정회 대표, 오광호 ESG경영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주)해양에너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장학금 5천만원을 기탁했으며, 장학금은 전남대·조선대·광주대·호남대·광주과학기술원(GIST)·남부대 등 6개 대학교 학생들 가운데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우수한 지역 인재들에게 지원될 예정이다.

해양에너지는 빛고을장학금뿐만 아니라 소방공무원 자녀를 위한 특수장학회, 돌봄이웃 지원, 명절맞이 나눔행사, 숲길·산책길 가꾸기 등 사회공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다.

정회 해양에너지 대표는 “장학 사업은 지역



을 성장 시키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만큼 지역 청년들이 꿈을 이루는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해양에너지는 앞으로도 밝은 미래를 만드는 데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강기정 시장은 “인재양성 사다리 완성을 위해 매년 손을 맞잡아주셔서 감사하다”며 “해양에너지의 지속적인 나눔은 지역 인재 성장의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복선경기자

광주전남기협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기행’

전국 언론인들이 5·18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월 광주를 방문, 부당한 역사에 맞선 오월 영령과 민주열사의 뜻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했다. 광주전남기자협회와 한국언론진흥재단은 9일 전일빌딩25층 회의실에서 ‘전국 기자 초청 5·18 역사기행’을 개최했다.

이번 역사기행은 오는 11일까지 2박3일 일정으로 펼쳐지며, 전국의 언론인들에게 5·18 현장을 안내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보도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 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 충북, 대구·경북, 경남·울산, 전북, 강원, 제주 등 전국 각 지역 기자협회 소속의 기자들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조진태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가 ‘모두의 오월, 하나되는 오월’이라는 주제로 5·18의 의미를 되짚었고, ‘국가폭력의 가해자들은 어



떻게 탄생됐을까’라는 제목으로 광송연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책임연구원이 강의했다.

행사에 참가한 기자들은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 옛 전남도청 등 사적지도 답사한다.

류성호 광주전남기자협회장은 “전국에서 광주를 찾은 기자들이 이번 역사기행을 통해 5·18에 대한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태만기자

농협 곡성군지부 ‘농업기관 합동 농촌 일손돕기’

농협 곡성군지부는 9일 “곡성군 오탁면 일원에서 곡성군 농업 관련 기관 합동 영농 지원 발대식 및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영농지원 발대식과 함께 올 한해 종년농사를 기원하고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이해 농촌일손돕기 지원 및 참여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결의를 다짐하고 오탁면 소재 사과농장에서 사과 열매 수거작업을 했다.

앞서 지난 3월에는 5개 농업기관 임직원들이 참여해 생활쓰레기·영농폐기물 등을 수거했으며 관내 농협은 유관기관·봉사단체와 함께 일손돕기 행사를 추진했다.



안종팔 농협 곡성군지부장은 “농협과 농업 관련 기관이 영농 지원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라며 “함께한 고향후부모임 회원들에게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곡성=김영필기자

광주아이돌봄센터 ‘이용자 가족 이벤트’ 성료

광주시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는 “5월 가정의달을 맞아 최근 북구 패밀리랜드에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가족 이벤트 행사로 ‘아이사랑 토크 피자 패밀리’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전문 교육을 받은 아이돌보미가 3개월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가정에서 임시보육, 놀이, 등·하원 지원, 병원 동행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번 이벤트 행사에는 이용자 가정(40가정, 150여명)이 참여해 꼬마 스포츠가 직접 반죽하고 아빠, 엄마의 마음사람으로 토크하는 피자 만들기 체험을 통해 가족 모두가 웃고 즐기는 시간을 가졌다.



박금자 센터장은 “5월 가정의달을 맞아 가족 단위의 아동친화 프로그램을 개발, ‘내 아이바로 알기’ 등 가족간 힐링 테라피 시간을 만들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질 높은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기수희기자

인사

광주과학기술원(GIST) ▲생명과학부 학부장 김영준 ▲실험동물자원센터장 이재영(신소재공학부 교수·현 연구처장)

결혼

▲박계옥(신도시건축사대표)·박명자씨 장남 철오(무안군청군, 최병만·최진숙씨 장녀 윤정(무안군청)양=11일(토) 오전 11시 무안 남약수가이웨딩컨벤션 3층 그랜드엘렌홀(061-284-0010).